

- 지상강의 -

호스피스 활동의 철학

Dr. J. F. Hanratty

진행성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더 이상의 시도가 무의미할 때가 온다. 그럴때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여생이 육체적·정신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간호가 이루어진다.

환자들이 호스피스에 도착하게 되면, 무섭거나 불안감을 느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들의 생이 많아야 몇 개월도 아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절망적인 증후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커다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첫번째 의무는 환자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자신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상당히 부적절한 방법인, 특별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약물 치료, 제 요법 및 간호과정 등 올바르게 적용하면 환자의 정신적 경각심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면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행히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치료법이 가능하고 또한 대단히 효과적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사회적, 정서적, 영성적인 원인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살아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호스피스의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그들이 죽는 날까지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남아 있는 귀중한 며칠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기가 매우 쉬워서 사회적인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호스피스의 이상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이며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며, 환자들을 따뜻함과 애정으로 감싸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상처 받기 쉬우며 사랑과 친절만으로 증명될 수 있는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귀중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다. 이것이야말로 환자들이 그들이 지닌 공포심과 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며, 서두르지 않으며,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은 사라질 수 있다. 환자들은 예를 들어, 그들의 가족들, 경제적이나 법적인 어려움들 : 정서적 혹은 영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를 개입시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환자의 삶이 붕괴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분열도 초래할 수 있다. 환자가 임종하기도 전에 정신적인 슬픔으로 인한 괴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죽어 가는 환자를 총체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사별의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애통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댓가이며,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어쨌든 고통 가운데 특정한 부분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큰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호스피스 활동은 팀을 형성해 일해야 한다-의사들, 간호사들, 사회 사업가들, 지도신부들, 물리 치료사들, 직업 치료사들과 자원 봉사자들-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더불어 일하고 있다.